


A silhouette of a cross on a rock against a sunset sky. The cross is positioned at the top center, with a vertical post and a horizontal crossbar. The rock is a dark, jagged shape on the left side of the frame. The sky is a gradient of orange, yellow, and blue, with some clouds. The text is overlaid on the rock and sky.

# 오늘의 말씀

Scripture reading

행 7:17-22

Acts 7:17-22




# 행 7:17-22

## Acts 7:17-22

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,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불어났습니다.

18 마침내,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.




# 행 7:17-22

## Acts 7:17-22

19 이 임금이 우리 겨러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,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,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,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.

20 바로 이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. 그는 용모가 아주 잘 생긴 아기였습니다.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.



# 행 7:17-22

## Acts 7:17-22

21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,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.

22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,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.

# 설교

“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”



주님 품 안에서...  
누구나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

**Valentine's Day**

**Single Awareness Day**  
**(솔로 자각 데이)**

**I.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 
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  
다.(v.17)**

# 17절

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,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.







뉴스쇼 **광**

중국 조폭 재벌 사형장 눈물

TV **조선**  
LIVE

재산만 7조원... 조폭형 기업 운영하다 형장 이슬로

22:24

사회 | 사당종합체육관 신축현장 천장 붕괴... 12명 매몰, 11명 구조

**“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, 노  
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  
보고 싶다.”**

**“내 야망이 너무 컸다.”**

**II.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 
시간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 
(vv.17-20a).**

**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,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.**  
**18 마침내,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님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.**  
**19 이 임금님이 우리 겨레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,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,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,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.**

**16왕조를 건설한 **히소스 왕****

**VS.**

**히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18왕조를 세  
운 **아하메스 왕****

**20절 상반절**

**바로 이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  
다.**



**III.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(vv.20-22).**

**<새번역>20절 상반절.**

**바로 이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.  
그는 용모가 아주 잘 생긴 아기였습니다.**

**<개정>20절 상반절**

**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**

**20 바로 이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. 그는 용모가 아주 잘 생긴 아기였습니다.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.**

**21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,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.**

## 출 2:1-10

1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.

2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,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, **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.**

3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,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,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.

4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,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 보고 있었다.

5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.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,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,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 오게 하였다.

6 열어 보니, 거기에 남자 아이가 울고 있었다. **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.** “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.”

7 **그 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.** “제가 가서,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?”

8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. **“그래, 어서 데려오너라.”** 그 소녀가 가서,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 왔다.

9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.

**“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, 나를 대신 하여 젖을 먹여 다오. 그렇게 하면, 내가 너에게 값을 주겠다.”**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.

10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,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, **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.** 공주는 “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” 하면서,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.